

## 박철수 일기

8월 5일 (화요일) | 맑음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고 더웠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체육 시간에 피구를 했는데 땀이 비처럼 났다.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으로 치킨까스가 나와서 행복했다. 집에 와서는 숙제를 빨리 끝내고 게임을 조금 했다. 내일도 맑다고 해서 기대된다.

8월 6일 (수요일) | 비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다.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갔는데도 발이 다 젖었다. 오늘은 실내에서 미술 시간을 했다. 색종이로 나비를 만드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비가 와서 운동장을 못 나가서 아쉬웠지만,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봤다. 저녁에는 따뜻한 라면을 먹었다. 비 오는 날엔 역시 라면!

8월 7일 (목요일) | 흐림

오늘은 흐린 날씨였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딱 좋았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전기 회로를 배웠는데,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신기했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랑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살짝 혼났다. 그래도 금방 풀어주셔서 다행이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웠다!